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Music

한 경 신(Kyungshin Hahn)**

< 목 차 >

I. 서론	III. 악보자료의 서지제어
II. 악보자료	1.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발달
1. 악보자료의 유형	2. 악보자료 서지제어 현황
2. 악보자료의 생산 및 유통	IV.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상의 과제
3. 악보자료의 발간현황	V.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자료 중 특히 서지제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완전한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악보자료의 유형을 비롯 악보자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과 악보자료의 발간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발달과정을 살펴본 후,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 대해 국가서지를 비롯한 각종 서지와 국제적인 활동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상의 과제로서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필요성 인식,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서지제어기구의 구성, 음악국가도서관의 설립과 주제국가 서지 발간, 표준서지기술의 준수, 국제협력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기관의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악보, 악보자료, 음악자료, 서지제어, 악보자료서지제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music that is especially far-off the bibliographic control activitie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hannels of printed music and their publication situation are investigated. Then the development of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music is examined. And also, domestic, foreign, and international bibliographic control activities of printed music are analyzed. Finally, the special issues to be considered in our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music are presented.

Keywords: Printed Music, Scores, Music Materials, Bibliographic Control,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Music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한남대학교 교원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ks0330@hnu.kr)

• 접수일: 2009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음(音)으로 표현하는 청각예술이자 공연예술로 이론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다. 따라서 음악자료는 읽을 수 있는 인쇄자료와 들을 수 있는 청각자료로 구성된다. 그 중 인쇄에 의한 자료는 악보와 음악문헌을, 음에 의한 청각자료는 음반·테이프 등의 녹음자료와 비디오·DVD 등의 영상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음악자료에는 팜플렛·전자자료·악기·각종 공연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존재한다.

음악자료 중 악보는 작곡가에 의해 작곡가가 지닌 특유의 음악성과 예술성에 따른 창작예술 작업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악보는 음악자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자료이다. 그리고 이들 악보는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소리로 표현되며, 디스크·테이프·비디오·전자자료 등에 기계적 또는 전기·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된다. 그리하여 이용자는 이러한 청각자료를 통해 악보로 기록된 음악작품을 듣고 느끼고 감상하게 된다.

오늘날 음악의 창작활동은 음악, 즉 공연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음악대중화시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음악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음악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음악자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악보의 전 세계 생산량은 모든 주제분야에서 출판되는 도서의 총 수와 비교할만한 방대한 양으로 추측되고 있다.¹⁾ 우리나라 역시 활발한 음악활동으로 수많은 악보가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악보자료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서지제어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악보자료를 중심으로 음악자료의 서지제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음악자료의 서지제어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음악활동의 성장속도에 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악보자료가 특히 서지제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즉, 모든 음악활동의 근거가 되는 악보자료는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다가²⁾ 2007년예야 개정된 법에 의해 악보가 추가되었다.³⁾ 또한 우리나라의 전국적 상용 서지인 『한국출판연감』 역시 음악분야에 음악도서와 책자형태의 악보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립음악도서관이나 음악도서관협회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악보자료를 비롯한 음악자료 서지제

1) Guy A. Marco, "Music Literature and Bibliography,"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 Marcel Dekker, 1976. Vol.18, p.479.

2) 음악자료 중 악보자료 이외의 나머지 납본대상인 녹음자료·영상자료 역시 완전한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2007년 4월 5일 개정·시행된 대통령령 19963호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에서 납본대상에 악보가 추가되었다.

어를 주관할 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와 관련된 연구활동조차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음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악보자료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악활동의 성장속도에 비해 그 기초가 되는 악보자료에 대한 관심과 관리 및 활용도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확인 및 소장처규명은 물론 체계적인 수집·정리·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고 완전한 악보자료의 서지제어는 우리의 음악과 예술·문화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자료 중 특히 서지제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악보자료를 중심으로 이들의 서지제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자료의 서지제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먼저 악보자료의 유형을 비롯 악보자료의 생산과 유통과정 및 이들의 발간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발달과 현 서지제어활동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서지제어활동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악보자료

1. 악보자료의 유형

악보는 작곡가가 지닌 특유의 음악성과 예술성에 따른 창작 음악작업의 결과물로 생겨난다. 그리고 그 악보는 연주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소리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악보자료는 음악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자료로, 원래 청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음악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기보법⁴⁾ 및 음악활동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악보자료가 생산되어 왔다.

악보자료는 이용목적·크기·형태 및 판(版)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출판된다. 따라서 악보자료 서지제어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ISBD(PM)·AACR2R·KCR4에서는 악보자료에 대한 자료특성사항으로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이용목적에 따라 악보자료는 크게 연주용악보와 학습용악보로 구분된다. 이 중 연주용악보는 연주자의 연주나 리허설을 위해 발행한 악보로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에서 악기 혹은 성부 전부를 한 묶음으로 표시해 작품의 전체 세부사항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한 총보(full scores)와 그 음악작품에 참여하는 각 악기 및 성부별 악보인 파트보(parts)로 구분된다.⁵⁾ 이들 총보와 파트

4) 기보법은 각 나라와 민족음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옛날부터 시도되어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오늘날의 오선 기보법은 17세기 이후에 완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보는 대체로 함께 출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주용악보는 또한 관현악용·합주/합창용·중주/중창용·독주/독창용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리고 학습용악보는 교육이나 감상의 편의를 돕기 위해 편집된 악보로, 미니어처스코어를 비롯한 작곡가별·시대별 등의 전집 및 선집·날장악보 등이 있다. 이들 학습용악보는 악보책, 즉 단행본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악보의 크기는 대체로 19-35cm 정도로 다양하게 발행되며, 크기에 따라 일반악보·소형악보·대형악보·특대악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악보자료는 형태에 따라 책자형악보를 비롯한 두루마리악보·마이크로악보·접자악보·팩시밀리악보와 오늘날 전자기술의 발달에 의한 디지털 악보 등 다양한 악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판에 따라 악보자료는 원전악보(Urtext-Ausgabe)·필사본악보·편곡악보·재편집악보(edition)⁶⁾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2. 악보자료의 생산 및 유통

음악은 음이라는 한 단위에서 시작하여 작곡·연주·감상의 단계를 거쳐 성립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따라 음악자료는 작곡의 결과물인 악보와 연주한 내용을 음향화한 녹음·영상자료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연주·감상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음악자료를 찾게 된다.⁷⁾ 이와 같이 음악자료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산된다.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결과물인 악보자료는 총보·날장악보·파트보·표지·크기 등 체제상 다양한 형태로 출판된다. 특히 앙상블·관현악·합창곡 등은 일반적으로 총보와 파트보가 함께 수록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곡이 출판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편곡, 편집 등 다수의 판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악보자료는 별도의 단일 악보 외에도 선집이나 전집형식으로 하나의 자료 안에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발췌곡의 경우는 보다 큰 규모의 작품 중 일부가 별도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생산 및 유통구조는 도서의 경우와 별개의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각 음악자료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갖기도 한다.

악보자료는 대부분 소수의 음악전문출판사나 발행사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들 출판사나 발행사는 순수·예술음악, 음악교육자료, 대중음악, 민속음악, 종교음악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 출판사들은 '순수' 또는 '예술'음악만을 외부의 원조없이 취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출판비용에 비하여 그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대중음악' 분야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악보의 생산량은 19세기 이후 급속히 증가해 왔다. 역사적으로 순수·예술음악에서의 대표적인

5) 한경신,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236.

6) 예를 들어 피아노음악의 손가락번호나 현악음악의 활표시, 프레이즈표기 등을 첨가하여 발행한 악보.

7) 정유진, 음악자료의 목록정보 확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p.9.

음악전문출판사들을 살펴보면, 독일의 Breitkopf & Härtel(1750-) · Peters(1800-) · Schott · Bärenreiter · Henle, 영국의 Novello(1811-) · Boosey & Hawkes · Oxford University Press 의 music branch, 미국의 Schirmer(1861-) · Presser(1883-) · Carl Fischer,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Universal, 프랑스 파리의 Durand · Heugel · Salabert · Edition Russe de Musique, 이탈리아 밀라노의 Ricordi, 동부유럽의 PWM(Crakow) · Artia(Prague) · Editio(Budapest) 등을 들 수 있다.⁸⁾ 이들 출판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시들을 통해 그들의 악보자료를 배포하며, 국제적 범위의 최신목록을 유지하기도 한다. 오늘날 역시 이들 출판사들을 비롯한 Pallma music, Musicdata, International 등의 출판사들은 악보전문출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악보자료는 일부 음악전문출판사를 중심으로 간행되고 있다. 이들 출판사들은 주로 악기교본 · 작곡가별 전집 및 선집 · 합창곡집 · 가곡이나 가요집 · 피아노 피스 · 소량의 연주용 파트보 등을 발행하며, 교향곡 등의 생산은 극히 제한된 수요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악보를 생산하는 주요 음악전문출판사를 살펴보면, 1951년 11월에 창립된 현대음악출판사를 비롯 세광음악출판사 · 유니온악보출판사 · 삼호출판사(삼호뮤직) · 수문당 · 음악춘추사 · 재순악보출판사 · 후반기출판사 · 한국음악사 · 태림출판사 · 아름출판사 · 음악세계 등이 있다. 또한 일반출판사 중 일신서적출판사는 1988년 이후 많은 악보를 발간하여 왔다. 국악관련 악보 및 음악자료를 주로 취급하는 국악전문출판사로는 은하출판사를 비롯 민속원 · 보리 · 어울림 · 한우물 등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종교음악만을 취급하는 전문출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에덴문화사 · 기독교문화사 · 호산나문화사 · 코랄21 · 미완성출판사 · 유빌라테 · 아가페음악선교회출판부 · 중앙아트 · 예술 등으로 주로 기독교음악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요악보전문출판사로 한국음악교육연구회가 있다.

국내에서 특히 고전음악분야의 연주용 악보구입은 외국의 음악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국내의 음악전문대행사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 이는 출판비용에 비하여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출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악보자료의 구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행사로는 대한음악사 · 한국음악사(출판사와는 별개임) · 내외음악사 · 현악사 · 삼익악기사 · 중앙악기사 · 음악플러스 등이 있다.

이민정의 연구에 의하면,⁹⁾ 우리나라의 주요 음악대학도서관과 교향악단에서의 악보의 입수방법은 95% 이상이 구입에 의존하였다. 또한 악보구입을 위해서는 직접 출판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행사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행사 이용시 그들은 외국대행사의 경우 주로 독일의 Otto Harrassowitz사 · C. F. Peters사, 미국의 E. F. Kalmus사 · Eugene Baily사 · Broude

8) D. W. Krummel. "Music Printing and Publishing."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 Marcel Dekker, 1976. Vol.18, p.490.

9) 이민정,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pp.54-58. 참조.

Brothers사·G. Schirmer사, 프랑스의 MAX ESHIG, 일본의 YAMAHA와 音樂之友社를 이용하고 있었다. 국내대행사의 경우는 주로 대한음악사를 중심으로 중앙악기사·교보문고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고전음악 악보는 그 초판이 오래전에 절판되어 리프린트 악보 발행사업이 활발하다. 특히 세계 2차대전 직후에는 악보자료의 전문화된 리프린트회사들이 번창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회사는 Kalmus와 International이다.¹⁰⁾ 또한 국제음악학협회(IMS: 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와 국제음악도서관협회(IAM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res)는 옛 음악작품들의 악보 리프린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Documenta Musicologica*를, 미국음악학협회(AMS: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와 음악도서관협회(MLA: Music Library Association)는 리프린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범주의 주요 리프린트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¹¹⁾ 그리고 미국의 음악출판사협회는 절판된 악보를 타 소장기관에 의뢰하여 복사하고자 할 경우의 필요한 형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악보판매업자나 악보출판사들에 의한 유료대출도서관이 악보자료의 보급 및 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음악저작권법의 제정은 악보의 출판과 유통과정에 영향을 끼쳐 왔다. 음악저작권법¹²⁾에 따라 악보는 작곡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의 저작권이 보호되며, 그 이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 동안은 작곡가 당사자 또는 그와 계약한 특정 출판사를 통해서만 구입·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가 1964년 이후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서, 우리나라 각종 음악분야의 저작권사무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관리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위탁기관들에 의해서도 저작권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악보번호(ISMN: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는 악보자료에 부여되는 국제표준번호로서, 악보의 판매·임대·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저작권 목적을 위해 악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것이다.¹³⁾ 그리고 악보자료 출판상 나타나는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는 대체로 발행일자가 없는 악보자료에서 발행일자의 추정에 실마리 역할을 하며, 국제표준악보번호와 마찬가지로 각종 악보자료의 유통 및 서지제어 활동에서 식별수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전자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로 제작되는 디지털악보가 등장함에 따라 악보를 필요로 하는

10) D. W. Krummel, *op. cit.*, pp.490-491.

11) 이민정, *op. cit.*, p.14.

12) 작사자, 작곡자, 음악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로서, 이용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

13) 김정현, "ISO/TC46과 국제표준번호 제도의 발전동향," 정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2004), p.60.

기관이나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값싸고 편리하게 악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악보제작과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들 디지털악보는 대중음악과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상업적인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지제어 개념의 활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악보를 취급하는 곳들은 악보자료만을 취급하거나 음악전문쇼핑몰로서 악보자료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가 찾는 악보의 경우 빠르게 제작해주기도 한다. 국내의 주요 디지털악보를 취급하는 곳으로는 인터뮤즈(<http://www.intermuz.com>), 악보바다(<http://www.akbobada.com>), 악보공장(<http://www.upiece.co.kr>), 악보나라(<http://akbonara.co.kr>), 악보통(<http://www.akbotong.com>), 뮤직스코어(<http://www.musicsscore.co.kr>), 악보넷(<http://akbo.net>), 악보24(<http://www.akbo24.com>), Music All(<http://musicall.co.kr>) 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악보이외의 다른 음악관련 자료 및 상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또한 CCM악보 전문으로는 GOD People Music(<http://music.godpeople.com>), 찬양천국 CCMPIA(<http://www.ccm pia.com/music/>), 뮤직데이(<http://www.musicday.co.kr>) 등에서, 그리고 국악전문으로는 국악춘추사 등에서 디지털악보를 취급하고 있다.

3. 악보자료의 발간현황

오늘날 음악의 창작활동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창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악보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악보자료의 전 세계 생산량의 파악은 불가능한 현실로, 모든 주제분야에서 출판되는 도서의 총 수와 비교할만한 방대한 양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악보자료에 대한 서지제어활동의 부족과 미간악보(unpublished scores)의 발간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국내 악보자료의 연간 총 생산량이나 출판물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는 음악자료 중 특히 악보자료의 서지제어가 가장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서지인 『대한민국국가서지(舊,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와 국가적차원의 판매서지인 『한국출판연감』은 음악 부문에 음악관련 도서와 책자형태로 된 악보책만을 단행본에 포함하여 왔다. 따라서 단행본 중 음악자료 부문에서 악보책만을 별도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07년 이후에야 납본대상에 악보자료가 포함되어 왔으나 이 또한 홍보부족과 납본관리의 미비 등으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분야의 『국악연감』 및 『문예연감』을 비롯한 관련자료 역시 악보자료의 발간현황에 대한 내용은 없고, 창작곡의 작곡현황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중 국악에서의 초연창작곡은 1990-2003년까지 2096곡으로 연평균 161곡이며,¹⁴⁾ 양악분야의 작곡은 2002년 107곡, 2003년

14) 국악연감(서울: 국립국악원, 2004), p.147.

82곡, 2005년 108곡 등으로¹⁵⁾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창작곡 역시 악보의 발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발간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악보 및 음악관련 대행사인 대한음악사의 경우 취급하고 있는 악보자료는 피아노악보 5014건, 바이올린 2249건, 국악 94건, 대중음악 251건 등 약 30,000여건의 악보를 취급하고 있다.¹⁶⁾

Ⅲ. 악보자료의 서지제어

1.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발달

19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악보자료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이 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음악자료 중에서도 크게 부족하여 악보자료 출판물의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악보자료에 관한 서지제어활동은 음악예술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19세기 초까지는 주목할만한 서지제어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각 국가의 국가서지류, 주요 음악도서관의 장서목록, 출판사목록 등을 비롯한 각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로 세분되어 발행된 목록들을 통한 제한된 분야의 서지제어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악보자료만을 수록한 서지와 음악자료 서지 중 악보자료를 함께 수록한 서지형태로 발행되어 왔다.

음악에 대한 최초의 주요 인쇄목록은 1548년 Conrad Gesner의 *Bibliotheca Universalis*에 대한 주제색인으로부터 시작된다.¹⁷⁾ 16세기 말 독일의 Frankfurt와 Leipzig에서는 비교적 악보 출판사업이 활발하였다. 이들 출판사들은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또는 도서전시회를 위해 목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음악출판산업의 센터로 발전해왔다. 그 후 1758년 Jakob Aldung에 의한 일련의 서지적인 에세이, *Anleitung zur Musikalischen Gelahrtheit*는 당시 획기적인 악보자료 서지저작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1792년에는 Aldung의 후계자 Johann Forkel에 의한 서지 *Allgemeine Litteratur der Musik ...* 가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약 3000개의 해제된 인용자료를 주제별로 만든 포괄적인 음악서지에의 첫 시도였다.

19세기에는 독일에서 음악학(Musikwissenschaft)이란 학문의 발달에 따라 열거서지에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새로이 발행된 악보자료에 대한 다양한 서지제어와 함께 초기음악의 자료들에 대한 서지제어활동의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세계의

15)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참조.

16) 대한음악사 홈페이지, <http://www.daihanmusic.co.kr/b_kind.asp?searchck=1> [인용2009, 2, 18.].

17) D. W. Krummel, "Bibliography of Music." In: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1980. Vol.2, p.688.

주요 도서관들의 음악장서목록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서지제어의 개념에 기초한 음악서지는 음악을 과학적 학문대상으로 삼는 역사적 연구에 힘입어 19세기 말에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의 악보 및 음악자료 서지연구의 특징은 다분히 개인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1817년 독일의 C.F. Whistling은 출판사의 후원에 의해 약 150년간의 독어권 음악출판물의 판매목록, *Handbüch der Musikalischen Literatur*(Leipzig)를 발행하였다. 그 후, 이것은 Friedrich와 Adolph Hofmeister에 의해 계속 발전되면서 “Hofmeister”로 알려져 왔으며, 여러번의 표제변경을 거쳐 1943년 부터는 *Deutsche Musikbibliographie*(舊, *Jahresverzeichnis der Deutschen Musikalien und Musikschriften*)로 독일의 음악주제국가서지로 발전하여 오고 있다. 또한 Robert Eitner는 음악 서지제어활동의 선도적인 인물로, 2개의 주요한 음악정보원에 대한 서지를 간행하였다. 그 중 1877년 발행된 *Bibliographie der Musik-Sammelwerke des XVI und XVII. Jahrhunderts*는 1501년에서 1700년 사이에 발행된 악보에 대한 약 1200개의 인쇄자료에 대한 서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Quellen-Lexikon*(1900-1904)으로 1800년 이전 음악의 악보자료의 1차정보원의 소장지에 대한 10권으로 된 서지이다.

한편, 소급서지의 개척자였던 C. F. Becker는 1836-1839년에 걸쳐 음악자료에 대한 분류목록인 *Systematisch-Chronologische Darstellung der Musikalischen Literatur*(2 Vols)와 1847년 초기음악에 관한 약 4000개의 대규모 목록인 *Tonwerke des XVI und XVII. Jahrhunderts*를 편찬하였다. 또한 Franz Pazdirek는 1904-1910년에 19세기의 서지에 대한 일종의 요약으로, 서구 세계에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악보 50만 항목을 수집하여 14권으로 발간한 일종의 판매목록인 *Universal Handbuch der Musikliteratur aller Zeiten und Volker*(Vienna)를 발행하였다.¹⁸⁾

당시 세계적으로 악보 및 음악자료를 풍부하게 소장한 도서관들의 장서목록 발간은 또한 악보자료 서지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들 주요 도서관으로는 오스트리아의 Austrian National Library, 벨기에의 Royal Library of Belgium과 Brussels Conservatoire, 프랑스의 Bibliothèque Nationale of Paris, 독일의 Deutsche Staatsbibliothek, 영국의 The British Library와 British Museum Library, Bologna의 Liceo, 미국의 Library of Congress, Vatican Library 등이다. 이들 도서관들 중 주로 국가의 중앙도서관들은 그들 국가의 음악장서에 대한 음악관련 국가서지를 별도로 발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오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서지가 1817년부터 발행되어 온 독일의 *Handbüch der Musikalischen Literatur*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서지류에서는 악보자료가 다른 음악자료와 함께 수록되거나 악보자료 중 책자형태의 악보만을 대상으로 수록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서지들이 악보자료에 대한 그들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지체해 왔기 때문이다.¹⁹⁾

18) Guy A. Marco. *op. cit.*, p.475.

19) D. W. Krummel. “Music Printing and Publishing.” *op. cit.*, p.490.

유럽과 미국의 명성있는 악보출판사들 역시 광범위하고 최신성있는 그들의 출판목록을 생산해 옴으로써 악보자료 서지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외국의 주요 음악출판사들에 대한 정보는 *International Who's Who in Music and Musicians' Directory*(舊, *Who's Who in Music and Musicians' International Directory*)와 *Directory of Music Research Libraries*²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악보자료를 비롯한 음악자료에 관한 서지적 연구에서 독일이 독점권을 잃기 시작하면서 영국·프랑스·이태리·미국을 중심으로 서지제어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 역시 새로운 악보발행물에 대한 서지적인 적용범위가 좋은 상태에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독일·프랑스·이태리·캐나다·러시아 등이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저작권법 활동과는 달리 그들의 나라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악보자료에 대한 정보에 관해 혼돈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 2차대전 이후 활발한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자료들의 막대한 급증과 저작권법·납본법·도서관법·출판법 등의 발전은 이전의 개인적인 서지제어활동이 팀이나 프로젝트 형태로 교체되거나 국가적·국제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음악분야에 있어서 국가서지와 종합목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서지제어활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1904년에는 악보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의 기원이 되는 Charles Ammi Cutter의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제4판이 발행되었다. 그 부록으로서 악보자료의 기술규칙이 포함됨으로써 도서관자료로서 악보자료의 서지제어가 주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음악서지의 발달로 인해 음악학교와 도서관학교에서는 '음악서지'란 학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들 학과목을 위한 음악서지들이 Vincent Duckles(Berkeley), Scott Goldthwaite와 Guy Marco(University of Chicago) 등에 의해 준비되어져 왔다. 따라서 활발한 서지제어활동 및 국제적인 협력활동과 더불어 음악분야의 서지학자들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보자료의 서지활동은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지제어의 범위에서 여전히 크게 벗어나 있다. 우리의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서지인 『대한민국국가서지』나 국가적 차원의 판매서지인 『한국출판연감』에는 책자형태의 악보와 녹음자료에서의 딸림자료로서의 악보만을 다루어 왔다. 또한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의 악보자료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된 서지제어 활동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오늘날 음악대학도서관의 장서목록으로서 악보자료의 취급은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편이다. 악보자료를 비롯한 음악자료의 완전한 서지제어를 통한 이들 자료의 폭넓은 이용은 우리의 음악문화육성을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들 자료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서지제어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20) *Directory of Music Research Libraries*, Kassel, Germany; distri., New York : Barenreiter, 1967- . Irregular.

2. 악보자료의 서지제어 현황

오늘날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각국의 국가서지를 비롯한 악보출판사목록, 음악도서관의 장서목록 및 각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 서지의 발간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서지는 소급서지와 현행서지 및 비평지의 형태로 발간된다. 악보자료에 관한 서지는 악보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음악자료서지로서 녹음자료와 함께 수록되거나 녹음자료 및 음악도서를 함께 수록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자료를 취급하는 서지의 일부로서 악보자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늘날 상업적인 악보 및 음악자료 관련 쇼핑물에서는 대체로 국악(한국음악)·대중음악·클래식(가곡 포함)·CCM·동요·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악보자료를 검색·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악보자료의 서지제어 활동현황은 악보자료 및 음악의 특성상 국가서지를 비롯 악보출판사목록, 음악도서관 장서목록,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 서지, 국악서지, 기타 서지 및 국제적인 협력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가서지

국가서지의 경우는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 대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서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그 국가의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 국가서지에 책자형태의 악보만을 단행본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서지들이 악보자료에 대한 그들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지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선진국의 경우 음악자료만을 위한 국가서지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음악자료로서 악보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악보자료만을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각 국가 대표도서관의 장서현황 역시 몇몇 선진국의 경우만이 악보소장량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은 그들의 국가서지를 웹상의 온라인 통합목록, CD-ROM 혹은 인쇄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도서관의 소장 악보자료에 관한 정보는 통합목록이나 특수장서의 음악 혹은 악보자료목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보자료나 음악자료만을 위한 국가서지나 목록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역시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 LC의 경우, 납본된 모든 음악자료, 즉 악보·음악도서 및 녹음자료에 대해 1953년 이후 반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Music, Books on Music, and Sound Recordings*(舊, *Music and Phonorecords*)를 비롯하여 *The Music Catalog on CD-ROM*(1960s-2001), *Library of Congress Music, Theater, Dance* 등을 발행하였다. 참고로 1953년 이전자료는 U.S. Copyright Office의 *Catalog of Copyright Entries*를 통해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악보자료에 관하여 1906-09년에 3권으로 발행된 *Catalog of Manuscript Music in the British Museum*을 시작으로

1912에는 *Catalogue of Printed Music Published Between 1487 and 1800...*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1957년 이후 The British Library는 본 도서관에 납본된 음악자료를 기초로 악보·녹음자료 등에 관한 목록 *BCM(The British Catalogue of Music)*을 계간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이 목록은 음악국가서지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81-87년에는 1980년 이전에 발행된 악보자료에 대한 그들의 소급서지 *The Catalog of Printed Music in the British Library to 1980*를 62권으로 발행한 바 있다. 이후 이것은 1995년 악보자료까지 추가하여 *CPM PLUS(CD-ROM)*로 1996년 발행되었다. 오늘날 이들 서지에 포함되는 악보자료는 웹상의 Finding music: printed music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Deutsche Nationalbibliothek는 1943년 이후 악보출판사들에 의해 제출된 악보자료를 Leipzig 국립도서관의 특수장서로 소장, 1829년 이후 발행되어온 *Deutsche Musikbibliographie*에 수록해 오고 있다. 이것은 1817년 C. F. Whistling의 음악출판사들의 판매목록 *Handbüch der Musikalischen Literatur*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악보자료들은 역시 국가서지 *Deutsche Nationalbibliografie Online*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프랑스는 특히 저작권법 및 납본법이 발달하여,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는 1811년 부터 국가서지 *Bibliographie de la France*를 발간, 악보자료를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파리의 음악출판사목록으로 1817-22년 C. Gardeton의 *Annales de la Musique*를 비롯한 *Le Bibliographe Musical(1872-76)*과 *Bibliographie Musicale Française(1875-1920)*는 국가서지이상으로 좋은 악보자료정보를 제공하였다.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Canada의 *Canadiana(1950-)*, 호주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의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y*와 *MusicAustralia*는 그들의 소장자료 통합목록과 음악관련특수장서목록을 통해 웹상에서 악보자료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國立國會圖書館은 그들의 국가서지 『日本全國書誌』 외에 『음악자료목록(CD)』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외에 국가서지로서 중국 中國國家圖書館의 『中國國家書目』, 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中華民國出版圖書目錄』,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의 *Malaysian National Bibliography*,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의 *NBI(National Bibliography Indonesia)* 등은 부분적으로 악보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 웹상의 통합목록에서도 악보자료만을 위한 별도의 검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서지 『대한민국국가서지』 역시 단행본으로서의 악보책과 녹음자료의 딸림자료로서의 악보만을 다루어 왔다. 따라서 악보자료만을 위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007년 개정된 납본법에 악보가 추가되었다하나, 아직까지는 국가서지나 온라인 통합목록을 통해 별도의 악보자료 검색이 어려운 실정이다.

나. 악보전문출판사목록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17세기 유럽의 활발한 악보출판사업에 따른 악보출판사들에 의한

판매목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역시 앞서 언급한 구미와 유럽의 주요 악보출판사들은 광범위하고 최신성 있는 그들의 목록을 발행하거나 웹상에서 그들의 악보자료에 대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 대표적인 악보출판사목록은 1951년 이후 Schirmer출판사에서 발행된 *Schirmer's Guide to Books on Music and Musicians: a practical bibliography*를 비롯하여 1974년 이후 각 음악형식에 따라 별권으로 계속 발행하고 있는 Philadelphia의 Musicdata 출판사목록인 *Music-in-Print-Series*,²¹⁾ 주로 피아노와 기타를 위한 Pallma 출판사목록²²⁾ 등이 있다.

세계의 주요한 악보전문출판사들에 대한 정보는 계속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는 *International Who's Who in Music and Musicians' Directory*와 1990년 이후 계간으로 Bowker에서 발행되고 있는 *Music Directory Plus*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보전문출판사들은 그들의 출판목록이나 종합목록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그들의 내부목록만을 만들거나, 웹상에서 그들의 목록과 디지털악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적규모의 상용서지인 『한국출판연감』은 책자형태의 악보만을 수록하고 있어 일반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의 악보자료 구입을 대행하는 악보대행사들 역시 그들의 악보자료에 대한 목록을 발행하지 않고 판매자료를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 음악도서관목록

오늘날 음악도서관들의 소장 장서목록으로서 악보자료의 취급은 상당히 상세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음악도서관 이용자들의 악보자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요구 때문이다. 악보자료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음악도서관으로는 음악전문도서관을 비롯하여 음악학교(대학)도서관, 교향악단·오페라극장·방송국 등의 음악자료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서관들은 역시 그들의 소장 악보장서에 대한 장서목록을 발행하거나 웹상의 온라인목록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합목록의 발행으로 그들의 악보 및 음악자료를 공유하기도 하여 왔다.

주요한 음악도서관의 장서목록으로는 1801년 이전에 간행된 소장장서를 대상으로 한 *Music in Harvard Libraries: a catalogue of early printed music and books on music in the Houghton Library and the Eda Kuhn Loeb Music Library*(1980)를 비롯하여 *The Catalogue of Music in the Bath Reference Library to 1985*(1986, 4 vols), *A Catalogue of the Shaw-Hellier*

21) *Music-in-Print-Series*로 발행된 목록으로는 *String music in print*, *Sacred choral music in print*, *Secular choral music in print*, *Organ music in print*, *Classical vocal music in print*, *Orchestral music in print* 등이 있다.

22) Joseph Rezits와 Gerald Deatsman에 의한 *The Pianist's Resource Guide: Piano Music in Print and Literature on the Pianistic Art*와 *The Guitarist's Resource Guide: Guitar Music in Print and Books on the Art of the Guitar* 등이 있다.

Collection in the Music Library, Barber Institute of Fine Art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1999) 등 많은 소장목록이 발행되어 왔다. 또한 음악도서관들의 악보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으로는 British Isles의 약 100여개 도서관의 약 55000항목에 대한 목록인 *British Union Catalogue of Early Music Printed Before the Year 1800*(1957), The British Library를 비롯한 약 60여개 도서관들이 소장한 목록인 *Music Manuscripts(1600 to 1800) in British and Irish Libraries* 등이 있다. 오늘날 이들 소장 장서목록은 온라인목록을 통해 그들의 소장 악보 및 음악자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전 세계의 주요한 음악도서관에 관한 정보는 1967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어온 *Directory of Music Research Libraries*를 비롯 약 6300개 이상의 음악도서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RISM Libraries Sigla(DB)*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음악도서관협회(IAML)를 비롯한 각국의 음악도서관협회, 즉 미국의 Music Library Association, 캐나다의 Canadian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등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음악도서관의 경우는 주로 음악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장 악보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온라인목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 외의 각종 음악도서관들은 대체로 악보자료에 대한 그들의 자체내 등록대장이나 유사한 책자형태의 목록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국내 음악도서관에 대한 정보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도서관연감』만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도서관협회와 같은 음악도서관관련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목록

오늘날 악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지는 주로 특정 시대나 악기·작곡가 및 음악형식을 중심으로 제한된 분야를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은 악보자료의 방대함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들 서지는 시대·악기·작곡가·음악형식 등 각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이 중 2·3개가 혼합된 형태로 다양하게 발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서지는 많은 수가 발행되어 왔다. 특히 고전음악분야를 중심으로 구미와 유럽에서 발행된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발행된 서지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목록으로 1700년 이전 이탈리아에서 발행된 기악곡의 귀중한 연대순목록인 Claudio Sartori에 의해 1952년 발행된 *Bibliografia Della Musica Instrumentale Italiana Stampata in Italia fino al 1700*를 들 수 있다. 둘째, 악기별목록은 1991년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바 있는 1580-1952년 사이의 피아노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Music for the Piano: a handbook of concert and teaching material from 1580-1952*(1954)를 비롯하여 Harvard대학교 출판사에서 발행된 *Instrumental Music Printed before 1600: a bibliography*(1954), Brüchel의 *Music Bibliographies for All Instruments* 등이 있다. 셋째, 작곡가별목록은 특히 많은 서지가 발행되어 왔는데, W.C. Smith의 *Handel: a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early editions*를 비롯하여 Harvard대학교 출판부 발행의 *Thematic Catalogue of the Works of Giovanni Battista Sammartini: orchestral and vocal music*(1976), 작곡가별 작품을 수록한 *Thematic Catalogue in Music: an annotated bibliography*(1972, 1997) 등이 발행되었다. 넷째, 음악형식별목록으로는 Oscar George Theodore Sonneck에 의해 Library of Congress에서 발행된 *A Bibliography of Early Secular American Music: 18th Century*(1945, rev. ed.)를 비롯하여 프랑스에서 발행된 *International Jazz Bibliography: jazz books from 1919 to 1968*(1976), *A Dictionary of Opera and Song Themes: including cantatas, oratorios, lieder, and art songs*(1976), *Orchestral Music: a handbook*(1982)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의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 악보자료목록은 국악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행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피아노에 관한 번역본 『피아노음악문헌』(전영혜, 김혜선 옮김, 음악춘추사, 1991)이 있을 뿐이다. 또한 윤이상·안익태 같은 주요 작곡가들에 관련된 단행본에서 부분적으로 그들의 작곡목록을 수록하고 있는 정도이다.

마. 기타 서지 및 서평지

이상으로 언급한 악보자료의 서지활동 외에 전집시리즈·선택서지·서평지·음악잡지 및 색인 등을 통한 서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집시리즈형태로 발행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ALA에 의한 *Historical Sets, Collected Editions and Monuments of Music*(1980)을 비롯 *A Handbook of Music and Music Literature in Sets and Series* 및 *Collected Editions, Historical Series and Sets and Monuments of Music: a bibliography*(1997) 등이 있다. 또한 선택서지로는 1957-62년에 영국에서 발행·배포된 것으로 부터의 선택서지인 *Music Librar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music literature and a select bibliography of music scores published since 1957*를 비롯 중·소규모 도서관의 악보 및 음악도서 수집시 선정도구로서 ALA가 발행한 *A Basic Music Library: essential scores and books*(1978), 현행선택서지 *Choice*(1976, 4)에 D. W. Krummel이 추천한 'Musical Editions : a basic collection' 등이 있다.

악보 및 음악자료와 관련된 서평지 및 정기간행물로는 음악 전분야를 다룬 것으로 1915년 이후 G. Schirmer출판사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The Musical Quarterly*를 비롯 1920년 이후 Oxford University출판사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Music and Letters*, 1940년 이후 W. Heffer출판사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The Music Review*, 1943년 이후 MLA에 의해 계간으로 발행되는 *Notes* 등이 있다. 또한 특정 음악분야만을 다루는 것으로 *Clavier, Early Music*(Oxford University 출판사), *The Piano & Keyboard, Guitar Review* 및 *Woodwind, Brass and Percussion* 등이 있다. 그리고 악보자료에 대한 색인으로는 *Index to Printed Music: collections & series*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보자료에 관한 전집시리즈나 선택서지·서평지·색인 등의 서지제어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지 『피아노음악』·『교회음악』·『음악춘추』·『음악동아』 등 음악관련 정기간행물에서 부분적으로 악보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비평이 수록되기도 하는 정도이다.

바. 국악(한국음악)서지

국악분야의 악보자료에 대한 서지제어 역시 국가서지를 비롯한 국악악보전문출판사목록, 국악 및 음악도서관 장서목록 그리고 시대·악기·작곡가·음악형식별 목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국악 악보자료의 서지활동은 고악보에 관한 목록으로부터 창작곡에 관한 목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지가 어느정도 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적차원에서의 국가서지 『대한민국 국가서지』나 『한국출판연감』은 국악악보책만을 수록대상으로 하여 왔으며,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악관련단체 역시 국가적차원에서의 악보서지활동에 소극적이어서 왔다. 따라서 장사훈, 송방송 등 몇몇 개인적인 음악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국악분야의 서지제어가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관련 단체에 의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악보서지로는 1960년 한국연구도서관에서 발행한 『樂譜選錄』을 비롯하여 장사훈의 『음악자료총서』(1971)와 『國樂文獻: 樂書·古樂譜』(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韓國의 民俗音樂』(1984-),²³⁾ 국립국악원의 『신국악보』(1962-)와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 1941-1995』(1996) 등이 있다. 또한 국악의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한 서지는 김창배 편 『韓國歌唱大系』(1976)를 비롯 이소라 편 『韓國의 農謠』(1986, 1992),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회의 『한국의 농요: 호남편』, 이소라 편 『경기지방의 상부(喪夫)소리』(2000),²⁴⁾ 『玄琴東文類記』(1976), 『雜歌樂譜集』(1983), 『해금창작곡집』(1999), 『한국피리연구회악보집』(2005), 『정악양금악보집』(2005), 『북녘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2007), 『잊혀진 거문고 산조의 명인들』(2008) 등 다수가 있다. 오늘날에는 각 악기별 교본목록을 비롯하여 국악동요악보집, 국악종교음악악보집 등이 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웹상의 국악전문출판사목록과 국악춘추사 등과 같은 국악전문쇼핑몰을 통해서도 발행된 국악악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국악관련단체나 음악대학의 온라인목록을 통해서도 국악악보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상의 국악 악보자료에 대해 이용가능한 서지들은 상당히 발간된 편이나 아직 완전한 서지제어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사. 국제협력활동

20세기 중반부터는 음악정보의 서지제어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전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에서 10년 계획으로 각 도의 민요·농악 및 무악 등을 대상으로 한 서지로 1984년 제주도민요편의 제1집을 시작으로 계속 발행해 오고 있다.

24) 이소라의 집필로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상부소리에 대한 자료를 2000년 경기지방을 시작으로 각 지방의 것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

세계의 도서관·박물관·아카이브즈·수도원·학교·개인장서 등에 산재해 있는 악보 및 음악자료의 서지제어를 위한 각종 서지발간을 비롯한 서지기술의 표준화, 국제표준번호제도 등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악보자료를 비롯한 음악자료의 국제적인 서지제어활동은 주로 IMS와 IAML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인 서지활동으로는 *RISM(Répertoire International de Sources Musicales)*을 비롯한 *RILM(Répertoire International de Litterature Musicale)*, *RiDIM(Répertoire International d'Iconographie Musicale)*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1951년 IMS와 IAML의 후원하에 이루어진 *RISM*은 1800년대 말까지 전 세계의 모든 음악정보원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 연대순 및 작곡가순 목록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Robert Eitner의 2개 서지, 즉 *Bibliographie der Musik*(1877)와 *Quellen-Lexicon*(1900-1904)을 하나로 통합해 보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다.²⁵⁾ 이후 이것은 전 세계 30개국²⁶⁾ 약 1000여개 도서관들이 분담한 국제적인 협력의 서지활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필사본 및 인쇄악보를 비롯한 음악이론에 관한 도서 및 가곡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4개의 *RISM* DB, 즉 *RISM Series A/ I* 과 *A/ II*, *RISM Composer*, *RISM Libraries Sigla*, *RISM Bibliographie Citations Database*를 갖고 있다. 이 중 악보자료와 관련된 것은 1952년 Paris에 본부를 설립한 이후 반년간으로 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는 *BibloLine*을 통해 검색 및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외에 *RILM*은 1966년 IMS와 IAML이 급증하는 음악문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초록을 제공하는 학술기사의 국제적인 색인 겸 초록지로, 1967년 이후 *RILM Abstracts of Music Literature*를 계간으로 그리고 1972년 이후 *RILM Retrospectives*를 발행한다. 이들은 *DIALOG*를 통해 *RILM ABSTRACTS*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연간 약 7000여건의 자료가 추가된다. 또한 *RiDIM*은 IAML·IMS 및 CIMCI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International Committee of Musical Instrument Museum Collections)에 의해 후원된 프로젝트로, 음악과 관련된 도해자료(iconographical sources) 정보원에 대한 국제적인 서지협력활동이다. 이상의 *RILM*과 *RiDIM*의 서지작업활동은 *RISM*의 목록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상의 국제협력활동 중 학술기사초록지인 *RILM*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악보자료에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악보자료 서지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은 MLA, ALA, IAML 및 IFLA 등에 의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IFLA와 IAML의 협력으로 악보자료의 국제표준서지기

25) Vincent Duckles, "Music Literature, Music, and Sound Recording," *Library Trends*, Vol.15, no.3(1967. 1), p.506.

26) Australia, Austria, Belgium, Belarus, Brazil, Canad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reat Britain, Hungary, Italy, The Netherlands, Mexico,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umania, Russia, Slovenia,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Ukraine, Uruguay 및 USA.

술 *ISBD(PM)*이 발행된 후 1991년에는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따라서 *AACR2R* 제5장과 *KCR4* 제5장에서 악보자료의 기술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악보자료 기술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기술규칙으로 하는 *MARC21*과 *KORMARC*(통합서지용) 역시 이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악보자료를 위한 국제표준번호로서 1993년 국제표준악보번호(*ISMN*)가 제정, 악보자료 식별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성기록 및 음악비디오기록에 관한 표준번호 *ISRC*와 음악작품의 식별을 위한 표준번호 *ISWC*는 관련 ISO를 바탕으로 KS에 등록 사용되고 있는 반면, 악보에 관한 *ISMN*은 아직 KS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V.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상의 과제

악보자료는 작곡가에 의한 창작예술작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음악의 기초자료이다. 오늘날 음악 대중화시대와 문화전쟁 가운데서 완전한 악보자료의 서지제어는 우리의 음악문화에 대한 기초작업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음악·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선행조건이 되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Ⅲ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악보자료 서지제어활동은 국가서지를 비롯한 각종 서지활동에서의 노력이 너무 미비한 상황이다. 국제협력활동 역시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Ⅲ장의 각종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악보자료 서지제어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나라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활발한 음악활동에도 불구하고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지제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인 국악분야에서조차 완전한 서지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음악인구 증가에 따른 악보자료의 생산량증가와 그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해 볼때 음악예술 육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서지제어 필요성의 긴급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활한 악보자료 서지제어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의 마련이다. 구미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저작권법을 비롯한 납본법·도서관법·출판법 등의 발달로 국가적차원에서 그들의 악보자료 서지제어를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제도적 보완의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담당기구의 일원화를 비롯하여 악보의 저작권등록과 동시에 국가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작권법 및 납본법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비롯한 납본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칙준용, 국제표준번호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악보자료의 완전한 서지제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악보자료 서지제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구의 구성이다. 악보자료나 음악자료의 서지제어 활동을 위한 위원회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함으로써 그동안 중복되어온 서지활동을 조정하고 미개발된 부분의 확충 및 악보의 디지털화 등의 서지활동 역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직체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악보 및 음악자료 서지제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협력기구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악 악보자료 서지제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악분야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국립국악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서지사업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설립과 주제별 국가서지의 발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서지 『대한민국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를 기초로 단행본을 비롯한 연속간행물·학위논문·고서·비도서를 수록하고 있다. 악보자료에 대하여는 책자형태의 악보책만을 단행본에 포함시켜 왔다. 2007년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은 납본대상에 악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악보책 이외의 총보와 파트보로 발행되거나 낱장악보 및 기타 다양하게 발행되는 악보자료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웹상의 예술자료 검색을 지원하는 ‘예술로’ 역시 악보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자료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악보자료 납본에 대한 홍보부족과 함께 각 주제영역에 따른 다양한 모든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한 곳에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음악을 비롯한 특정 주제분야의 주제별 국가도서관을 설립, 주제별 국가서지를 발행토록 함으로써 각 주제에 따른 각종 자료에 대한 완전한 서지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특정주제 전문도서관을 주제별 국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악보자료 표준서지기술의 준수이다. 국가서지 기술시 그리고 웹상의 통합목록 작성시 악보자료에 관한 표준서지기술을 준수함으로써 기술상의 표준화를 이루고 악보자료 서지정보의 상호교환 및 국가도서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표준서지기술 ISBD(PM)을 기초로 한 KCR4 제5장 악보와 KORMARC(통합서지용)에 따른 정확한 기술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국제협력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악보자료 서지제어활동 역시 국가간의 서지제어를 통한 악보자료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악보자료의 UBC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전 세계의 악보자료 서지정보의 소통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Ⅲ장에서 언급한 악보 및 음악자료의 국제서지활동 RISM에의 참여를 비롯한 국제표준음악번호 ISMN과 국제음악도서관협회에의 가입 등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시대에 있어 악보자료의 영문서지 발행을 통해 우리의 음악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우리의 악보자료 서지제어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

관으로는 악보를 발행하는 악보출판사를 비롯한 악보대행사, 음악도서관 및 음악분야의 각종 기관 및 협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음악자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1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 서지제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악보자료의 서지제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악보자료의 서지제어활동은 19세기 이후 악보자료의 막대한 증가와 음악학의 발달에 의해 악보출판사목록을 중심으로 국가서지, 음악도서관장서목록, 각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목록 등을 통해 주로 개인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납본법 등 관련법의 발전과 더불어 악보자료 서지제어활동은 팀이나 프로젝트형태로 그리고 국가적·국제적협력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악보자료 서지제어는 국가적차원에서의 『대한민국국가서지』와 『한국출판연감』에서 단행본으로서의 악보책만을 다루어 왔다. 또한 악보출판사들은 그들 출판사내의 간단한 목록이나 웹상에서의 상업상의 목록만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별·악기별·작곡가별·음악형식별목록으로는 국악분야에서만 부분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음악대학도서관만이 그들의 소장장서목록으로서 악보자료에 대한 기술을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는 편이다.

오늘날 음악대중화시대 및 문화전쟁 가운데서 음악의 기초자료인 악보자료의 완전한 서지제어는 우리의 음악·문화·예술육성의 선행조건이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제Ⅲ장의 악보자료의 각종 서지제어활동의 조사결과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상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국악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음악분야의 서지제어를 통해 음악문화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악보자료의 서지제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서지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악보자료 서지제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서지제어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음악주제 국가도서관의 설립과 국가서지의 발간을 통해 악보자료를 포함한 음악자료의 완전한 서지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서지 기술시 그리고 웹상의 통합목록 작성시 악보자료에 관한 표준서지기술을 준수함으로써 기술상의 표준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악보자료 서지정보의 상호교환 및 국가도서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악보자료 서지제어의 국제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전 세계 악보자료 서지정보의 소통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문서지 발행을 통해 우리의 음악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악보자료의 서지제어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악보 및 음악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자료 중 악보를 음으로 표현한 녹음자료의 서지제어에 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악연감. 서울 : 국립국악원, 2004.
- 김정현. "ISO/TC46과 국제표준번호제도의 발전동향." 정보관리연구, 제35권, 3호(2004), pp.51-74.
- 문예연감. 서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 윤병태. "우리나라 서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통권 제19호(1986. 1), pp.55-64.
- 이민정.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정유진. 음악자료의 목록정보 확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한경신.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231-256.
- AmRhein, Richard. "Internet resources for music."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news*, 56(1995), pp.760-763.
- Bradley, Carol June. *American Music Librarianship: A Research and Information Guide*. New York : Routledge, 2005.
- Buth, Olga. "Scores and Recordings." *Library Trends*, Vol.23, No.3(Jan. 1975), pp.427-450.
- Colquhoun, Joan. "Bibliographic Control of Canadian Music Materials." *Fontes Artis Musicae*, Vol.34, No.4(1987), pp.255-259.
- Duckles, Vincent. "Music Literature, Music, and Sound Recordings." *Library Trends*, Vol.15, No.3(1967, 1), pp.494-521.
- _____. "Music Bibliography in the United States(1960-1970)." *Fontes Artis Musicae* Vol.18, No.1·2(1971), pp.35-40.
- Hopkinson, Cecil. "The Fundamentals of Music Bibliography." *Reader in Music Librarianship* / ed. by Carol June Bradley. Washington : Indian Head, 1973.
- Jones, Malcolm. *Music Librarianship*. London : Clive Bingley, 1979.
- Krummel, Donald W. "Bibliography of Music." In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1980. Vol.2, pp.682-692.
- _____. "Music Printing and Publishing."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 Marcel Dekker, 1976. Vol.18, pp.482-493.
- _____. and Stanley Sadie. *Music Printing and Publishing*. New York : W. W. Norton, 1990.
- Marco, G. A. "Bibliographic Control of Sound Recordings." *Audiovisual Librarian*, Vol.15, Issue1(Feb. 1989), pp.19-24.
- _____. "Music literature and bibliography."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New York : Marcel Dekker, 1976. Vol.18, pp.473-482.
- Smiraglia, Richard P.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Music Materials in Librar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5, no.3(1985), pp.1-16.
- _____. *Music Cataloging :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in Libraries*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89.
- _____. *Bibliographic Control of Music, 1987-2000*. Lanham, Maryland : The Scarecrow Press, 2006.(MLA Index and Bibliography Series, No.32).